

野 당권주자 3인 ‘표심공략’ 한 달 레이스 돌입

박지원, 충북도당 첫 방문…“정권교체 위해 강한 야당 만들자”

문재인, 호남 非文정서 차단 전북 찾아 ‘이기는 정당’ 지지 호소

이인영, “광주가 낡은 질서 깨 부수는 정당 혁명 앞장서달라”

예비 경선을 통과한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 등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들이 8일부터 한 달 동안의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핵심 전략 지역을 방문, 당권 도전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초반부터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박지원 후보는 이날 새정치연합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릴 수 있는 강한 대표가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강할 때는 강하고, 협상할 때는 협상할 줄 아는 박지원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당을 혁신시켜 집권할 수 있는 길로 가겠다”며 “제가 강한 야당, 통합 대표로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후보가 충청권을 가장 먼저 방문한 배경과 관련, 캠프 관계자는 “호남에서 불고 있는 ‘박지원 바람’의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충청권의 지지 확보를 통해 호남에서 불고 있는 박지원 바람을 수도권으로 확산시켜 대세론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본선 첫 방문지로 전북을 찾았다.

문 후보는 이날 고창의 전통시장을 찾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무슨 수로 대선에서 이기겠느냐”며 “우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총선부터 이기는 것이 정권교체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지난 대선에서 지고, (그동안) 우리 당도 너무 많은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일어서야 호남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나라 정치의 주류로 만들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릴 수 있

지 않겠느냐”며 지지를 당부했다.

문 후보가 본선 첫 방문지로 전북을 택한 배경에는 호남의 비문(비 문재인) 정서 차단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권 도전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전북 민심을 우선 공략한 뒤,

순차적으로 광주·전남지역 정서를 다독인다는 것이다.

문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이 그동안 지역 구도가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에서 결국 진정성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비문 정서가 전북까지 확산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호남의 비문 정서 확산 여부가 당권 구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반란군의 사령관이 돼 낡은 질서를 깨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며 “광주에서,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에 불고 있는 정당 혁명의 불길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낡은 질서와 이념, 지역 계파, 연고 정치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대결이다”며 “광주시민들이 세대교체를 위한 새로운 선택, 전략적 선택을 해주면 정당 혁명은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날 광주를 찾은 것은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빅2’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신년인사회가 8일 오전 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당대표에 출마한 박지원(가운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고위원에 출마한 주승용 의원, 오른쪽은 전병환 의원. /연합뉴스

여야, 자원외교 국조계획 합의…증인채택 이견

野 “이명박·최경환·이상득·윤상직·박영준 반드시 포함해야”

여야는 8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자원 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논의했지만 의견차가 심해 추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이명박정부에 국한

하지 않기로 했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진행된다.

오는 3월중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정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여야는 이날 국조계획서 성안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을 놓고는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

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못박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성역없는 증인 채택이라는 원칙엔 공감했지만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보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이후 다시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여야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대립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을 때에만 불러야 대통령의 중점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한도 끝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내달 정개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오는 2월 중순 선거구 확정과 선거구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8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달 내에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원 국회의원 정부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의장 직속 기구인 국민자문위는 학계 등에서 의장이 4명, 여야도 각각 4명씩 추천해 모두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달 ▲무장정 법안의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개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정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10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안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과연 우리가 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맞느냐 따지고 새 시대에 맞게 권역별비례 대표제와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당위원장 박혜자 단독 출마

전남도당, 이윤석·황주홍 후보 경선 치러



박혜자 의원



이윤석 의원



황주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박혜자(광주 서구) 의원이 8일 등록 마감 결과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오는 18일 예정된 시당 정기대의원(477명) 대회에서 추대형식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여 차기 시당위원장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이날 등록 마감결과 이윤석(무안·신안) 의원과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이 입후보해 두 후보간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양 후보는 출마선언 단계부터 도 위원장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접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은 오는 18일 화순 하나흙체육관에서 열리며, 권리당원 50% ARS 여론조사와 대의원 50% 현장투표가 반영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서을 보선 새누리 조준성 예비후보 등록



조준성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오는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 조준성(55) 새누리당 전 광주시장 사무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 전 처장은 8일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구를 보선 첫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 전 처장은 예비후보 등록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의원을 보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서구에서 제2의 순천·곡성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처장은 이정현 의원 보좌역과 광주시장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미래전략 사회경제연구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

한국전화번호

1636 **결과** **민음소망** **알라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경선안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기독교 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2월 16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00~1:20 / 야간반 오후 6:00~10:2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 2015년 1월 16일(금)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1일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를 20% 할인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 2015년 3월 2일 개강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x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혜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리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심리상담사,

기정사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